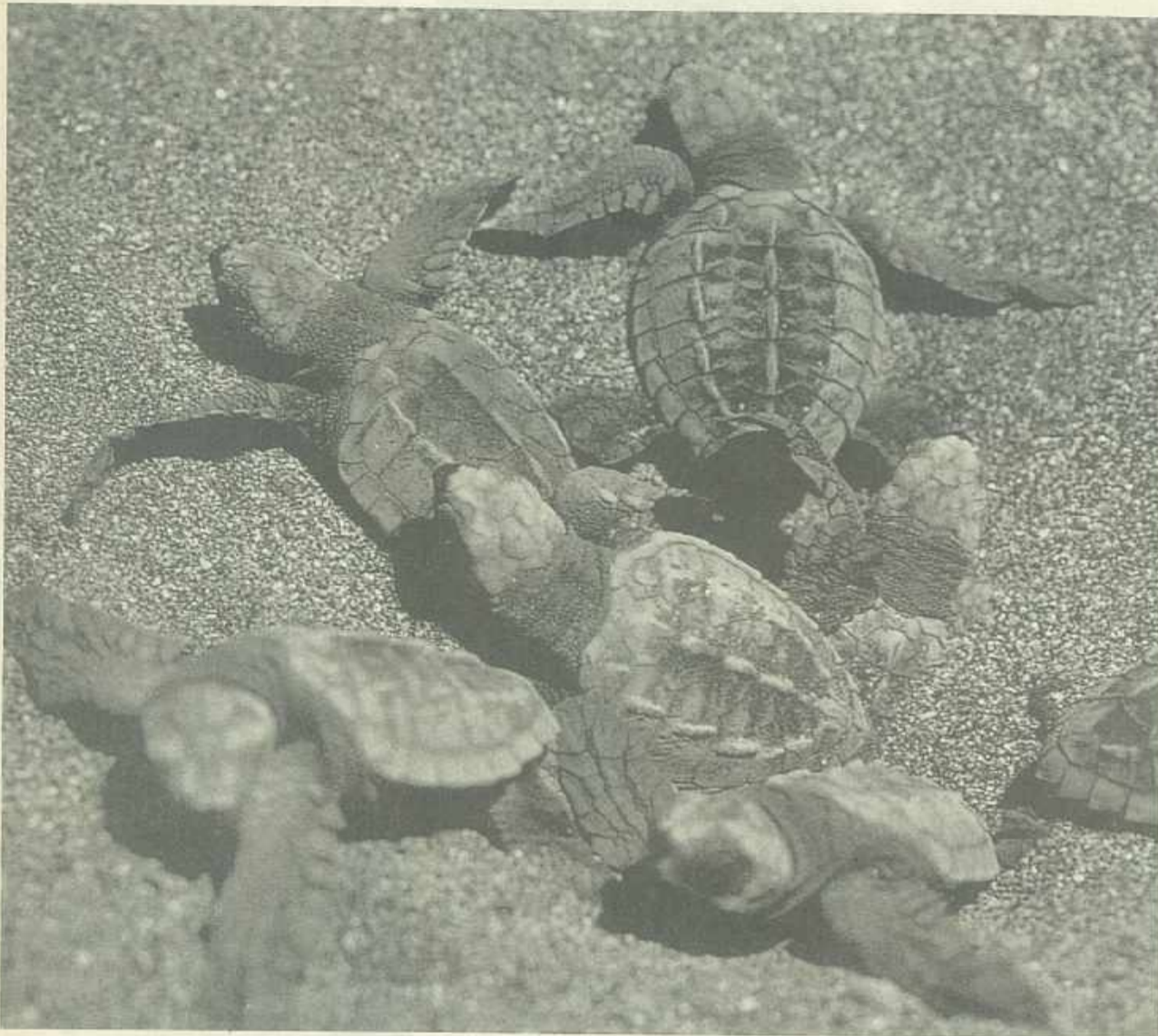


# 150마리중에서 불과 3마리만이 살아남는다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새끼 거북만이 살아서 바다에 가듯이— 묵묵히 말은 바 최선을 다함으로써 세계를 개척하는 일이 한화그룹이 추구하는 21세기 국제화 개념입니다.

거북 : 2억년이 넘는 오랜 세월을 큰 변함없이 살아온 동물. 육지에서 부화되는 새끼는 한 번에 약 150마리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 황새 등의 먹이가 되고 극소수만이 바다로 가서 산다.



의식 개혁을 통해 새로운 사고로 무장하는 일— 작은 기술을 소중히 하여 큰 기술을 만드는 일— 전 세계를 우리의 일터로 만드는 일—



이것이 21 세기를 향한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앞당기는 일— 한화그룹이 하고 있습니다.

## 한 화 그룹



깨끗한 산,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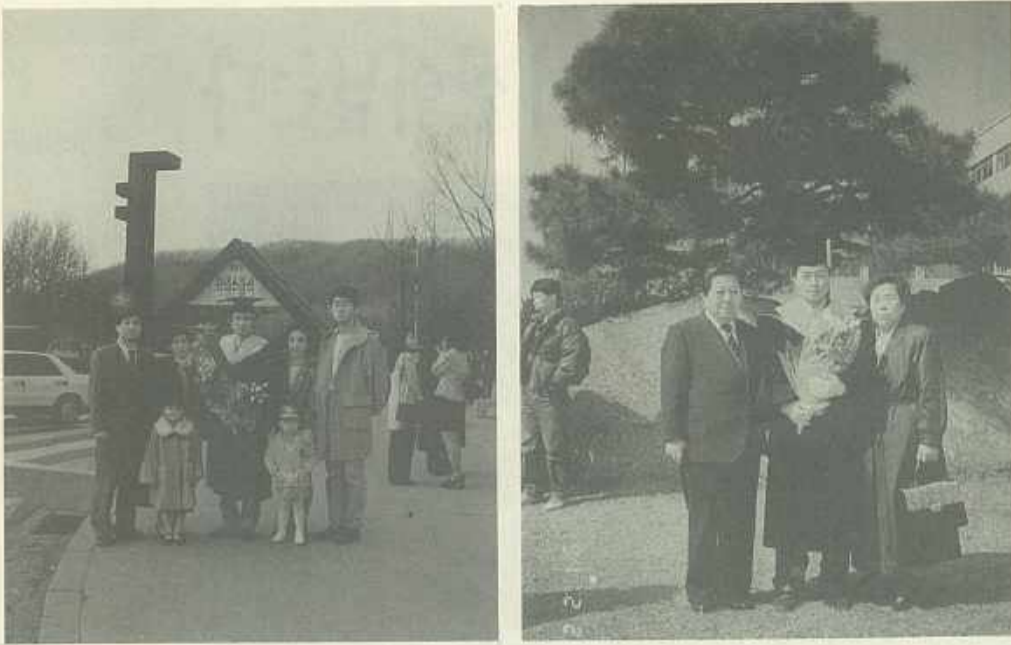
# 韓 火 組 團

## 會長 金 昇 淵



# 榮光의 두얼굴

金晋煥博士는 一九六三年 四  
 月 四日 判事公의 十七代孫  
 醫學博士 故東熙宗親의 三男  
 一女中 二男으로 태어나 일찍  
 이 서울大學校를 優秀한 成績  
 으로 卒業하고 同大學院에 進  
 學하여 지난 二月 二十六日  
 서울大學校 大學院을 修了함  
 만발 藝至양과 함께 孝心이



과 同時에 工學博士 學位를  
 받았다.  
 우리 門中의 크나큰 榮光이라  
 祝賀해 마지 않는다. 金東煥博  
 士는 翊贊公의 十六代孫인 五  
 淵宗親(本會總務幹事)과 安東  
 金貞淑女史사이애 一男四女中  
 長男으로 安東郡 豊川面 道陽

## 壽筵

● 典書公의 二十代孫 炳龍宗人은  
 古稀를 맞아 二男五女의 祝福속에  
 一九九四年 二月 二十七 12시  
 대공원부대 별관에서 여러친척과  
 친지들이 한데모여 古稀宴을 盛大  
 히 베풀었는데 婦人 李玉枝女史와  
 의 膝下에 長男 載洙 次男 實載를  
 비롯하여 二男五女 모두가 하나같이  
 이 孝子 孝女인 지라 뜻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있다. (一無)  
 ● 金炳秀宗人은 回甲을 맞아  
 一九九四年 二月 二十七 12시  
 부터 진주에식장 三층 미주부대에  
 서 아들 형제와 영재 그리고 따님  
 경자와 영숙의 현수를 받으며 성  
 대한 회갑연을 올렸다.

## 華燭

● 金軒載理事 長男 廣鎬君이 一九九三年  
 九月 二十五日 오후 一時 이점을  
 慶의식장에서 차영철씨의 장녀 동숙  
 양과 혼  
 ● 金宗貞副會長 次男 인권君은 인현학  
 씨의 장녀 영미양과 一九九三年 十月  
 十日 오후 一時 慶의식장인 長年別館  
 十층 대강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 金贊수씨 사남 양준근과 진길준씨의  
 장녀 경희양이 一九九三年 十月 三十一  
 일 오후 二시 신촌로타리에식장 二층  
 난실에서 백년 가약  
 ● 金科元 本會副會長의 長男인  
 根碧君은 郭鍾一氏의 長女 世彬양과  
 상봉을 慶의식장인 三층 (한민선선  
 타)에서 一九九三年 十一月 一日 오후  
 五시에 결혼  
 ● 金喆熙副會長의 三男 新翰君  
 이 一九九三年 十一月 十七日 오전  
 十一時에 公望터미널 三層 한민선선  
 타에서 郭元玉氏의 長女 丁儁양과 혼  
 례

## 訃音

● 金廣載理事 慈堂 安乘權氏께서는  
 一九九三年 九月 二十五일 영시  
 二十분께 노원구 삼계 九동 보담  
 아파트 二七七동 三三七호 自宅에  
 서 八五세를 一期로 別世하시어 九  
 월 二七일 이천군 모가면 소사리  
 산 三三, 一 先茆下에 安葬하셨습니다.  
 상가 冥福을 빌립니다.  
 ● 典書公 二十代孫 金晉煥君께서는  
 一九九四年 二月 二十一日 오전  
 十時 利川郡 大月面 巴洞里 自宅  
 에서 老患으로 別世하셨습니다.  
 ● 韓日은 九月 二十三일이고 葬地  
 는 大月面 道理里 先茆下에 安葬  
 하였습니다. 喪主는 利川徐鵬河이고  
 남동생에 炳興, 炳實, 炳千과 여  
 동생 炳珍, 炳賢등이 있습니다.  
 ● 金萬載(元名正古)宗인의 차남 慶  
 州 金三田君께서는 一九九四年 一  
 월 二四일 오전 二시 十분경 이천  
 군 대월면 군량리 一리 자택에서 노  
 환으로 別世하셨습니다. 향년 八三세  
 ● 一九九四年 二月 二十六일 구시리  
 선영하 부군 炳華公과 합장하였  
 다. 유족으로는 장남 萬載, 殊載, 煥  
 載와 자부 漢陽韓英子 慶州金順玉  
 (孫子 李俊을 비롯하여 七손녀가  
 있는데 고인 와 명중의 간병을 극  
 진히 한 분은 물론 애용하면서도 예  
 제에 따라 초종장례를 임수하니 모  
 두가 침송하더라  
 ● 本會理事이며 서울지역宗親會 監事  
 인 炳龍宗親의 婦人 安城李玉枝按君  
 께서는 一九九四年 三月 二日 病患  
 으로 서울 혜민병원에서 別世하셨습니다.  
 장지는 이천군 대월면 군량리 三  
 리 先茆하에 二十四日 안장 하였습니다.  
 유족으로는 장자 재서, 인제형제와 宣  
 載, 貞載, 汝英, 香蘭, 敬載등 二남 三  
 녀가 있습니다.

## 中央宗親會訪問

本 中央宗親會 宗報 編輯室을 수시로 訪問 慰勞하시고 激勵하여 주신 여러 宗親  
 諸君과 來賓들에게 깊은 감사함을 드립니다. (編輯室)

10.5	金世燾	高陽市 城石洞 784-2	2.4	金수永	大田市 太平二洞
10.20	金相容	서울시 中區區 面牧三洞	2.4	김영재	益山市 沙下區 괴정1동
10.21	金南福	서울시 은평구 용암동	2.17	金哲永	서울시 松坡區 진실동동
10.28	金實澤	全南 海州郡 漢谷面	2.17	金東南	경기도 안산시 천부동
10.31	金昌烈	水原市 長安區	2.17	金權熙	仁川市 南洞區 만수동
10.31	金在根	서울시 陽川區 목동	2.17	金仁厚	서울시 江東區 萬壽洞
10.31	金喆熙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2.23	金東昌	서울시 江東區 城內洞
11.8	金東烈	서울시 西大門區 弘恩洞	3.4	金俊永	서울시 城北區 長位洞
11.8	金俊水	서울시 城北區 長位洞	3.5	金榮禧	서울시 南洞區 西橋洞 稅務士
11.9	金允喜	서울시 道峰區 道峰洞	3.6	金由南	忠南 保寧郡 忠興면
11.30	金佑水	서울시 城北區 長位洞	3.7	金相容	光州市 西區 長三洞
12.13	金東英	全北 任實郡 三溪面	3.7	金河鍾	益山市 부산진구
12.23	金仁厚	仁川市 南洞區 萬壽洞	3.7	金 弘	서울시 鍾路區 풍송동
12.27	金東昌	서울시 江東區 城內洞	3.7	金載俊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12.27	金世燾	高陽市 城石洞	3.7	金榮庸	서울시 종로구 광창동
12.27	金仁厚	仁川市 南洞區 만수동	3.7	金수永	大田市 太平二洞
1.5	金允喜	서울시 道峰區 會三洞	3.12	金珍寬	서울시 東大門區
1.7	金萬植	城南市 분당구 분당동	3.14	金權熙	仁川市 南洞區
1.12	金佑水	서울시 城東區 자양三洞	3.23	洪俊植	國會圖書館

## 公 告

順天金氏中央宗親會  
 第五期 定期總會開催公告  
 會則第十二條二項에 依據 一九九四年 第五期  
 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開催함을 公告합니다.  
 (個別通知省略)  
 一九九四年 三月 二十四日

### 順天 金氏中央宗親會

會 長 金 鍾 植

一、日時：一九九四年 四月 二十四(日)  
 正午(十二時)

二、場所：서울特別市 中區 長橋洞 五五番地 玄  
 岩빌딩 二十八層 韓火그룹 大講堂

連絡處：中央宗親會 電話：七一八〇〇五二九番  
 ※전철 2호선·을지로입구역에서 二〇〇m 거리  
 을지로 2가 중소기업은행 三二빌딩앞

三、參席範圍  
 1、中央宗親會 全任員 및 代議員  
 2、全國地域宗親會 任員과 뜻있는 宗親

四、議案  
 1、第五期 收入支出決算報告  
 2、第六期 豫算案 審議  
 3、任員 改選의 件(監事)  
 4、양경공 位土 賣却處分の 件  
 5、宗報 續刊에 따른 財政檢出方案  
 6、其他 事項

全國地域宗親會長께서는 順天金氏宗報「가 到着되는  
 대로 宗親 및 全任員께 널리 連結하여 많이 參席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年會費納付現況表 (1933.9.20~1994.3.20)

<b>會長年會費</b>		
金鍾植	3.4次	2,000,000원
<b>監事年會費</b>		
金贊洙	5次	30,000원
<b>顧問年會費</b>		
金道淵	4次	30,000원
金鍾鎬	3次	30,000원
<b>幹事年會費</b>		
金永日	5次	30,000원
<b>理事年會費</b>		
金洛蕙	4次	60,000원
金鍾九	5次	30,000원
金在根	5次	30,000원
金在龍	5次	30,000원
金相容	5次	30,000원
金源善	5次	30,000원
金東壽	5次	30,000원
金仁厚	5次	30,000원
金仁德	5次	30,000원
金淳環	5次	30,000원
金慶熙	5次	30,000원
金東美	5次	30,000원
金東泰	5次	30,000원
金育成	5次	30,000원
金寅永	4.5次	60,000원
金東暎	5次	30,000원
<b>代議員年會費</b>		
金鍾八	4次	20,000원
金東日	5次	20,000원
金貞烈	4.5次	40,000원
金光永	6次	20,000원
金東浣	4次	20,000원
金仁孝	6次	20,000원
<b>世帶當年會費</b>		
金永基	1~3次	30,000원
金元基	1~3次	30,000원
金상화	1~5次	50,000원

서울宗親會(會長 金喆熙)는 九三年九月二十日 理事會를 召集 宗親會의 活性化 方案과 運營上의 改善策을 論議한 結果 緊急動議로 會則을 改正키로 決議하였다. 그리 同年 十月三十一日 中央宗親會 大會 議室에서 臨時總會 를 開催하였는데 總 務理事가 會則改正 의 趣旨을 설명하고 改正草案을 報告 滿 場一致로 原案을 通 過시켰다. 금번 會則 改正은 本會 運營에 있어 그 改善策의 一環으로 宗親會의 活性化를 圖謀코저 함이 그 改正 目的 의 全部임을 밝히면 서 改正내용을 아래 에 略述한다.

## 서울 宗親會 會則 改正

一九九三年 十月 三十一日

첫째, 十月一日부터 그 다음 해 九月三十日인 會計年度를 一月一日부터 十二月三十一일까지로 改正하였는바, 이것은 平常의 日程上 每年 十一月 中旬 이후 屋內 會議室에서 開催하였던 定期 會를 보다 伸縮性있게 日程 을 잡아 運用코저 함이 그 目的이고 理事의 年會費制

의 이다. 從前 本會의 最高議 決機構였던 總會를 地域宗親 會의 基本趣旨과 一致할수 있 도록 순수한 親睦會의 형태로 운영하고, 理事會 의 人員數를 從前 三十名 内外에서 宗派 地域 年令등 을 網羅할수 있도록 百名内外로 增 員하고 從前總會의 權限을 受任한 最 高議決選任機構로 擴大 改編하였다. 셋째, 本會의 業 務執行部署는 總務 와 財務로 兩分되 어 있었으나 組織 弘報와 宗務事業을 追加로 新設 擴大 하였다. 넷째, 本會의 定 期的인 財政收入 源의 確保策으로서 그 根據規定을 新設하 였다. 이것은 그들 안 定期的인 收入 源이 없어 不特定 篤志家의 寄附行爲 每年 十一月 中旬 이후 屋內 會議室에서 開催하였던 定期 會를 보다 伸縮性있게 日程 을 잡아 運用코저 함이 그 目的이고 理事의 年會費制

### 宗報發刊協贊金 (1993.9.21~1994.3.20)

金榮培 稅務士	200,000원
金東玉 (株)南鎔鐵鋼專務理事	300,000원
金貞烈 서울瑞草區	20,000원
金相容 光州市 (同源齋에서)	100,000원
金載俊 서울市 강남구	200,000원
金洛蕙 서울市(구여울 宗親會長)	100,000원

### 贊助金 (1993.9.21~1994.3.20)

金載俊(양경공 유적지 보존기금으로)	5,000,000원
金昇淵(한화그룹會長)	1,500,000원
金炳鎰(副會長)	1,200,000원

**宗報原稿 投稿 환영**  
宗報는 中央宗親會의 會報로서 상 부상조하며 宗親會 發展에 寄與하고 저 會員 모두가 만드는 희원의 大旗 紙입니다. 머우기 우리 組上님들의 偉大하신 업적을 살피고 그 높으신 뜻을 이어 받음으로서 나를 알고 나 의 부리를 아는 데 큰 의의가 있겠습 니다.  
宗親會 會報는 宗親會 會報로서 상 부상조하며 宗親會 發展에 寄與하고 저 會員 모두가 만드는 희원의 大旗 紙입니다. 머우기 우리 組上님들의 偉大하신 업적을 살피고 그 높으신 뜻을 이어 받음으로서 나를 알고 나 의 부리를 아는 데 큰 의의가 있겠습 니다.  
宗親會 會報는 宗親會 會報로서 상 부상조하며 宗親會 發展에 寄與하고 저 會員 모두가 만드는 희원의 大旗 紙입니다. 머우기 우리 組上님들의 偉大하신 업적을 살피고 그 높으신 뜻을 이어 받음으로서 나를 알고 나 의 부리를 아는 데 큰 의의가 있겠습 니다.

☞ 投稿 內容  
一. 宗親會 관련있는 行事나 活動狀 況  
二. 宗親會에 상부상조하는 美談  
三. 宗親會의 逸話詩와 隨筆  
四. 모든 宗親의 勳勞(筆端, 學位榮 轉, 訃告, 其他)

▲ 宗報編輯室

**臨時總會에서 서울 宗親會 總務理事 金哲永**

度의 導入檢討가 그하나의 方 案이 될수 있다. 하였다. 이 案과 같은 會則改正은 本 會 執行部署의 一員으로서 四 年餘間에 體得한 經驗에 따라 地域宗親會는 親睦會 爲主로 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그 特 性を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積 極的인 參與와 협조가 있기를 期待한다. (끝)

**年會費納付案內 會費納付額**

中央宗親會는 宗親여러분인 會長 100만 以上 副會長 50만 以上 顧問 및 名譽會長 50만 以上 監事 三만 以上 幹事 三만 以上 理事 三만 以上 代議員 二만 以上 世帶當年會費 五千 以上 額은 第四次 定期總會에서 다음과 같이 決定되어 收納 中에 있사오나 아직껏 納付 하지 않은 분은 곧 納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幹事)

# 慶北 능금 農業協同組合



監 事 金 錫 均



住 所 : 慶北 醴泉郡 下里面 愚谷里 442  
東 光 農 園  
電 話 : (0584) 52~7919

從仕郎公 14代孫  
中央宗親會 理事  
嶺南地域宗親會理事



孝友烈로 억누르고

烈女 幸州기씨의 기구한 事緣

二百年 못된 恨을 저세상 新房에서

아래군(郡)에서 무우정(舞  
鶴亭)으로 가는 길에 남한관 앞지  
바른 언덕밭에 초라하리만큼 평  
범한 무덤이 있고 그 앞길가에 열  
너행주기씨정결비(烈女幸州奇氏貞  
節碑)라 새겨진 직달막한 비석이  
서 있으니 이묘(墓)가 다름아닌 새  
석시 할머니의 묘소이고 할머니의  
기구한 사연과 만인의 귀감이 될 행  
적이 새겨진 정결비이다. 새석시  
할머니라는 태호(宅號)는 색시(처  
녀를 뜻함)로서 늙었다는 뜻이니

순하고 슬기로웠으며 어릴때부터  
남달리 효성이 지극하여 인근에서  
도 출중한 규수요 효녀라 일컬었  
다. 자라서 열세살에 남편호공과  
친가에서 초례를 올리고 몇해후 다  
시 기일을 태하여 우귀(于  
歸)시집으로 가는것(하)기  
로 기약하고 남편은 부인  
을 친가에 남겨둔채 본가  
인 인천으로 돌아갔다  
그 이듬해 정초에 처가로  
세배를 가게 되었다.

치녀도 아니요 그렇다고 기녀로  
분수도없는 단장의 한아 서린 한평  
생을 살다간 기구한 율령의 주인공  
새석시할머니의 애달픈 별칭이다.  
열녀기씨의 부군은 전서공의 14  
대손인 호(號)공이시며 기씨는 충  
경북도 중원군 주덕면 사략리(中  
原郡 朱德里 沙栗里)에서 태어났  
다. 기씨는 남편서부터 친중이 온

이런에서 중원까지는 백  
여리가 되었는데 신랑은  
나막신을 신고 먼 길을  
걸어서 중원땅에 당도하  
자마자 노동과 괴질로 처  
가에서 세상을 뜨고 말았  
다. 그때의 부인의 나이  
는 겨우 열네살이었다  
시대에 오기전에 청상  
과부가 되었으니 원통한  
일이로다. 그러나 기구한  
윤령만을 닮아 버림하  
라 기씨는 절연히 일어나 친정  
중원 황금산(黃金山)기씨 양지마  
른 곳에 부군을 안장하고 남편없  
는 시가로 홀로길을 계속  
하러나 한결음 한결음이  
가시 밭길이요 부는 바람  
도 한숨인양 느꼈으리  
라. 또한 남편없는 시가  
에 당도한 부인의 심정이  
어디했으며 남편없는 시  
집살이는 또한 오죽했으  
라 더욱이 시모난인 청해  
이씨(靑海李氏) 남편의  
생모는 작고한지 오래고  
재취의 시모됨을 피시게  
되었으니 시집살이의 쓰  
라움을 짐작할만 하다.

그러나 오직 정절(貞節)이  
라는 두자만을 가슴에 짊  
어 새기고 모든의경을 참  
고 견디면서 밤에는 발걸  
이 밤에는 길삼으로 시부  
모됨을 극진히 섬기고 남  
편과 조상의 봉제사에 정성을 다하  
여 효부 열녀의 도리를 다하고 우  
애도 돈독하여 집안일을 화목하게  
이끌고 나보라는 뜻을 들보는 학



열녀 행주기씨의 정결비와 정절을 설명한 입간판



우측이 행주기씨 부부의 묘소이고 좌측은 양자내외의 묘소

한일을 하니 당시 유림의 포상은  
물론 고을의 수령은 직접 부인을  
찾아와서 칭찬하는등 인근의 칭송  
이 들끓었다. 새석시가 할머니가  
될 때까지 깨끗한 몸가짐으로 효  
났고 기씨의 六대방손 도한 김  
병일(金炳鎭)이 충효사상 망양과  
고향가꾸기 사업의 하나로 세워진  
데 제막식날에는 이천군수 임경호  
(林敬鎬) 現京畿道知事 靖원시장교  
육장동 경향각지의 유림과 유지 주  
민등 천여명이 운집하여 제막식을  
성대히 거행하고 열녀 행주기씨의  
효 우열의 가극한 뜻을 기렸다.  
기씨는 시동생 위(號)의 장남 성오  
(星五)를 낳은지 사흘만에 치마폭  
에 싸다가 고리 길러 남편의 뒤를  
잇게 했는데 그 후손이 번창하고  
또한 효자 열녀가 많이 배출 되었  
으며 이웃의 부러움을 사는 순천김  
씨(順天金氏) 집성촌을 이루었다.  
남편 호공은 처가인 충청북도 중원  
군 주덕면 사략리 황금산 기씨 읍  
출한 단판방에 묻히고 부인 기씨는  
뉴어서 세상을 뜨니 남편과는 반대  
로 경기도 인천군 대평면 군항

지난해 十一月十  
四日은 을령으로  
十月一日로서 우  
리 順天金氏의 始  
祖이신 平陽君의  
墓祀日이다. 이  
날 全國各地에서  
모인 數十名의 宗  
親이 경건한 마음  
으로 參禮하였는  
데 安東의 元杰 宗  
人의 執禮唱芻로  
시작된 墓祀는 初  
獻官으로 서울의  
采庸宗親, 亞獻官  
에는 서울 佑永宗  
親, 終獻官에 保  
寧에서 오신 圭南  
宗親, 順으로 獻酌  
하고 大邱의 應淳  
宗親이 告祝하는  
등 모든 節次를  
하였으며 山神祭 役시 獻官

金昇淵 顧問의  
崇祖事業 企畫

에는 釜山の 河鍾, 祝官에  
完州에서 오신 商倫, 執禮  
에는 光州의 相容宗親들의  
分定으로 墓祀를  
갈마쳤다.  
특히 이번 墓祀는  
金昇淵顧問의 誠  
으로 床石을 비롯  
하여 長明燈, 將  
軍石, 望柱石등을  
장엄하게 세우고  
墓域을 깔끔히 改  
善하였으므로 參  
禮한 宗人 모두가  
호뜻해 하였으며  
飲福하는 자리에  
서는 金昇淵顧問  
님의 崇祖事業을  
입을 모아 칭송하  
였다.  
本會에서는 副會長  
兼 幹事長 炳鎭,  
總務幹事 五淵宗親  
이 參禮하고 香料  
로 金一封을 奉도  
하였다.  
(一無)

參考文獻  
大韓忠義孝烈錄 利川郡誌 御史  
韓勝男文集 利川郡誌文  
烈女幸州奇氏貞節碑文 順天金氏大  
同譜卷一 順天金氏世譜 古香村의  
발자목들과 七代배孫金于載의 證言  
등을 參考로 하였음.

始祖 平陽君 墓祀嚴修

새로이 단장된 묘역에서 海南 鎮國 宗人이 보내온 진양주를 酒로

우리는 三韓甲族의 後裔로서 孝友愛(효도와 우애)를 바탕  
으로 祖上을 正統적 받들고 父母에게는 孝道하며 同氣間에  
는 友愛로서 和睦하게 살아온 집안이며 特히 吳淵 宗人의  
祖父이신 在民公과 先考 鍾喜公은 始祖墓域을 대를 이어  
가며 擴張淨化하였고 數年前부터는 吳淵 宗人의 親兄인 昇  
淵 宗親이 더욱 誠意를 보여 墓域의 擴張은 물론 모든 石  
物을 改新 設置하는 등 三代에 걸친 誠誠과 本會創立以來  
계속적인 협찬을 하였음을 宗報等을 通하여 이 事實을 全  
國의 宗親들에게 알림으로서 모든 宗親으로부터 讚辭를 받  
고 있는 차제에 吳淵 宗人은 財產上의 사소한 意見差異로  
兄弟 窮地에 몰아놓고 어머니와 祖上을 욕되게 하였으며  
全國의 宗親들이 낮을 들수 없게한 過誤를 강력히 指彈하  
는 바이다.

옛글에도 「兄弟 讎于 牆 外 禦 基 侮」 卽 형제간에 담장안에서  
는 서로 다툰지라도 바깥에서 남의 업신여기는 것을 막아  
야 한다는 교훈을 거울삼아 兄弟間 母子間의 일은 愛情과  
양보로서 풀지 못하고 온 나라가 다 알도록 하였으니 장차  
子女에게 무엇을 보이겠으며 祖上을 뱀뱀하게 대하겠는가.  
宗門에서는 今年 四月 定期總會와 지난 二月에 開催한 會  
長團會議에서 吳淵 宗人을 엄중히 응징하라는 宗論이 비등  
하였기로 數次에 걸쳐 私信으로 警告한바 있으나 改過遷善  
은 커녕 知性人으로서는 도저히 理解할수 없는 乖僻한 망  
언을 떠벌리고 있으니 아연실색할 일로서 宗門에서는 더  
以上 默過할수 없이 再參警告하노니 간교한 무리를 물리치  
고 大誤覺醒하며 앞으로는 우애로서 서로 감싸는 화목한  
모습을 보여 주기 바라노라.

順天金氏中央宗親會

金昊淵 宗人에게  
엄중히 警告함

Table with 10 columns and 10 rows listing the members of the Hyeonjeon Kim Family Central Ancestral Association. Columns include titles like 'Chairman', 'Vice-Chairman', 'Secretary', etc., and names like 'Kim Gyeong-ju', 'Kim Gyeong-joon', etc.



# 善行宗親

張外淑 孝婦은 壬戌七月二十七日 醴泉군 용문면 원곡리에서 延福君 松雪軒 張未孫先 生의 十五代孫인 善福의 夫人으로 태어났다. 어려서 부터 총명하고 남달리 효심이 두터워 누구나 칭찬을 구수했다. 장효부는 나이 열세살에 判事公의 十七代孫 秉泰(字敬 亮)公의 장남 榮南(舊名: 慶 熙)공인과 결혼하여 七순의 年인 나이에도 지난 二月 十三日 一百세로 작고하신 후 시 부 秉泰公을 지성으로 봉양하여 天壽을 누리시게 하였고 초종에는 예종하면서 도 예제에 따라 장례를 정성껏 모셨으며 장노사상이 부절하여 남편의 부모도 내부모 같이 섬기니 一九八五年 五月八日 아버지 榮南公과 함께 八十五세로 별세하셨다.



## 十年前에 孝婦賞 받은 張外淑 孝

열세살에 시집와서 스무살에 살림을 맡고 마흔살에 출시부 一百살 天壽누리게.

더욱이 시동생과 시누이를 비롯하여 시집와서 출생한 子녀 子녀의 자녀와 손자 손녀 종질녀 종손녀 등 부려六十명이 넘는 가솔을 이끌어 왔으므로 이 못에서는 효부 宗親外에도 女丈夫 張氏라 는 애칭도 얻게 되었다. 이는 榮南宗人宅은 勿論 무리 宗門의 자랑이라 하겠다. (一無)

# 金載俊宗親五百萬圓獻誠 襄景公遺蹟保存基金으로

金載俊宗親은 本中 央宗親會 副會長이시 며 서울宗親會와 구여 올宗親會의 顧問等을 歷任하면서 모든 宗親 事業에 남다른 關心으로 積極 協贊하시면서



公 遺蹟保存基金으로 中央宗親會에 奉모하 여 주심으로써 94년 2月 十六日字로 開催 한 會長團會議席上에 서 載俊宗親의 높은 뜻을 고맙게 받아드렸 음을 全國宗親에게 널리 알려드립니다. 이 基金은 中央宗親會에서 맡아서 앞으로 의 襄景公할아버지의 遺蹟保存事業基金으로 有效하게 쓸것입니다. 다시한번 金載俊宗親에게 感謝의 뜻을 드립니다.

襄景公의 不孝廟인 月潭祠의 祭祀基金으로 金五百萬圓을 奉모하여 全國宗親으로부터 갈채와 감사의 칭송을 받은바 있음은 本會에 서 機會있을때마다 이 事實을 宣傳하였고 本報 第七號 十四P 上段에 掲載하여 알렸으므로 宗親이 다 알고 계실것입니다.



# 金昇淵 本會 顧問

서울 大學에 또다시 藏書基金五十億 傳達

金昇淵 顧問은 지난十二月三十一日 서울 大學校 圖書館에 藏書擴充基金

十億圓을 金昇淵 顧問이 지난 九十一年 서울大 도서관에 잠시 수증을 갹키 위하여 약속한 二百五十億圓의 金昇淵 藏書基金中 九十一年에 八十億圓, 九一年에 七十億圓, 九二年에 五十億圓에 이른 마지막 잔여분이이다. 서울大學側은 一月 二十一日 圖書館四層에서 金昇淵藏書基金 헌관식을 갖고 出捐한 二万 二千元권과 學情誌 五千一百여종 非圖書資料 六十五종을 선보이고 앞으로 이 基金의 收益金으로 各分野의 專攻改書籍과 非定期刊行物 研究論文 등을 購入할 豫定이라고 말했다. (一無)

# 孝行과 善行 宗親을 찾습니다.

中央宗親會에서는 孝行과 善行으로 우리 門中을 빛내고 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는 宗親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門中이 孝行과 善行을 행함에 앞장서고 있는 家門임을 널리 홍보 할수 있도록 주번의 美談 殊忠 義孝烈 또는 社會奉仕 등의 美談을 書面 또는 電話로 提報하여 주시면 宗報에 掲載하여 全國의 宗親들에게 널리 弘報하여 드리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 宗親短信

「天海亭」再版 發行配布 龍田 金苗熙 本會顧問이 著述한 天海亭文稿를 一九八三年 十一月 二十五日字로 天海亭發刊委員會가 發配 布한바 있는 同委員會는 一九九三年 八月 十二日字로 再版을 發行하여 制限 配布하였다. (一無)

## 바로 잡습니다

本報 第七號 一P 上段 끝을 (始祖城으로)는 「始祖墓 다음 墓城」으로 하고 十二P 音 音記事 利川宗親會長 金炳燾 本會理事의 母親喪記事中 「利川 宗親會長」은 「利川 宗會長」의 잘못이고 장일은 「八月 十日」은 「七月十日」의 誤植이며 八P 端宗祭와 忠臣壇廟亭 參禮記 記事中 「節祭公 戰手 記念館에 胸像奉安」의 「節祭公」은 「節齋公」의 옳으로 바로 잡습니다.

# 祝 宗報第八號發刊

# 會 親 宗 會 會 會



會 長 宗 親 會 理 事 孫 中 原 公 鐵 20 代

- 會 長 金相源
- 代 金采麗
- 初 金金載
- 二 金金載
- 三 金金載
- 四 金金載
- 五 金金載

薰薰佑哲

洛益相裕

金金金金

會 長 務 務 副 總 財



인 의 후를 두고 천천히 북쪽의 방이 박차를 가하자고 하였다. 모든일을 급히 서둘러 갔어도 현재의 사실로도 당장 눈앞에 다치지 않음은 확실한 것이었다. 막을 수

있으므로 그리 걱정할 것이 못된다. 고 하였다. 북변의 요새는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쌓아나가자고 하였다. 서울의 조정에 들어갈 아서 반대만 하는 사람들은 현저 실정을 모르고 히든소리만 하는 대이었어서 그가 굳건히 북방의 방어에 만전을 기하는 한에 있어서는 저절로 그들의 논의가 가라 앉을 것이요 보았다. 또 이에 따라 현재의 민심도 저절로 안정되고 백성들에게 민폐도 거의 끼치지 않게 되고 병력도 차츰 강하여져서 그 결과 아인들이 기세가 켜져 도적질도 차츰 하지 않을 것이며 새로 세운 고을들도 같이 안정될 것이라고 하였다. 김종서의 의견에 국력반대하고 나섰던 사람들이 되었다는데 이처럼 육진 개척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세종에게 충성을 다하는 重臣들이었다. 이들은 현저에서 김종서가 勞苦를 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였으나 그가 너무 험기

에 넘쳐 지나치게 자기功名에 남칠 정도로 그를 신임하고 있는 데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김종서는 자기의견에 대하여 사사건건의 불고 늘어지는 이들에 대하여 보다못해 다음과 같은 상소하였다. 자기의 과로운 심정을 술회 하였다. 모든일에는 그 자취가 있으므로 아무리 온죄를 감추려고 하더라도 숨길 수가 없사옵나이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邪인지 어떤 것이 공이며 어떤 것이 私인지 신길은 愚濶한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公私의 분간이나 忠奸의 판가름은 오직 밝고 다지신성상계만 있을 따름이옵나이다. 옛부터 먼 지방에서 일을 보는 신하는 반드시 갖은 비난과 모략을 당하여 화를 면하지 못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시대에 유관도 그 좋은 하나의 본보기입니다. 유관은 명문집 출신으로 큰 공이 많았지만 그래도 참소와 비방을 면치 못하였사옵나신 것이 소그마한 공로도 입삼고

또 일을 이루지만 능력이 없사옵나 고 오직 잘못한 것만 많사옵나 한심치 않겠사옵나...  
충성과 苦心  
세종 十六年(一四三四)에 김종서는 양명을 받들고 북방의 길을 황급히 밟았다. 당시 그는 四十五세로 북변의 백성을 다스리는 威武道觀察사의 重任을 맡고 임지로 떠났다. 북방개척의 모든 일이 그의 양 어깨에 매어졌다.

평소부터 그의 사람됨됨이를 잘 알고 있던 세종이 줄기에 내린 어명이었다.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左宗伯로서 중앙의 중요한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던 그였다. 삭방의 휘몰아치는 두만강 연안에서 그는 자기의 앞길을 내다볼 수 없는 험난한 길에 나서게 되었다. 그는 오직 성실 하나만을 걸림이로 나라

에 충성을 바치고 백성들과 자기 휘하의 사람들에게多情하게 대하였다. 오직 그의 머리속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국토의 어떤 땅을 회복하느냐의 한숨이 시릴지 없을 까 하는 일념뿐이었다. 그는 임을 다물고 자기앞에 놓인 모든 장애를 헤치고 나아갔다. 이러한 그의 피나는 정성을 가 장 잘 알아주었던 사람은 세종이었고 그의 열은 몸은 온 훈이 되어주고 있었다. 김종서가 북변에서 四城개척을 계획하고 현지조사에 착수 할 때 조정에서는 여러사람들의 의견이 구구하였다. 김종서의 계획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반대파의 사람들은, 현저가 위되지 않을지 모르리라고 하니 그의 죄는 갈라쳐 행하더라도 남의 입사입니다. 고까지 무언(無言)하였다. 그러나 세종은 이러한 주장에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김종서의 끝은 충성을 끝까지 믿고 의심치 않았



전쟁 기념관 전경

추진하도록 김종서를 격려하는 한편 그를 다시 都節制使에 임명하여 六鎭설치를 완성케 하였다. 남쪽으로 왜구를 물리치기 위해 그들의 본거지인 대마도까지 침입을 막는 北征을 자기의 대업으로 생각하였다. 이것은 나라안의 모든 사람을 편하게 살게 하는 의도가 있었다. 당시 압록강 방면에 시 문제가 되었던 여진족의 출입은 다만 우리나라안의 문제로만 그치는 일이 아니었으니 여진의 추장 李滿住가 요동방면으로 세력을 뻗어 만나라를 침략하여 결국 우리나라로부터 그 배후의 조심을 받게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의 만나라와의 관계를 이 여진족을

이 더욱 거침없이 옹호 하였다. 그러므로 사군방면에서 여진족의 출몰을 적어 누르는 일은 나라안을 조용히 하는 일일 뿐 아니라 귀찮은 만나라의 관계도 조절하는 일이었다. 김종서가 오진을 개척하자

을 남나들면서 우리 鎭을 괴롭혔다. 그러다가 세종 四十年(一四四二) 가을 우디카가 착랑하여 대규모로 침입한 뒤부터는 거의 해마다 계속하여 드나들며 북세력하고 소란을 피웠다. 조정의 여러사람의 의견은 도저히 이들을 이거할 수 없다고 하여 경원부를 용성(지금유성)으로 옮겨 물리자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용성으로 경원을 후퇴시키자는 이 주장에 대하여 세종은, 국토개척은 옛조상때부터 우리민족이 지니온 이상이다. 그리 할 수는 없다. 고 하고 경원을 富居에 그대로 두고 방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김종서는 五鎭개척을 주장하면서 전략적인 지점들을 자세히 논의하였다. 세종 四十四年(一四四三)에 정부는 경원의 서쪽에 있는 石梁(지금부령)에다가 영부진을 설치하고 아인의 침략을 막도록 조치하였다.

十六年(一四三四)에 석막의 영부진을 伯顏愁所(지금충성)로 옮기고 이곳을 중심으로 이 일대의 중심군을 설치하였다. 이에 뒤이어 아목하(阿木河)의 아인들이 침입하는 김복에다가 鐵을 새로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곧 會寧이다. 회령은 아인의 침투를 막는 데 요충이 되는 주요한 지점이었으므로 곧 都護府로 승격시켜서 아인들의 침공을 막는 최전초기지로 삼아 경비를 한층 강화시켰다. 또 경원부를 헛가(會 亨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날의 경원읍입니다. 고려때부터 내려오던 孔州는 孔城이라 하는 현을 만들었다. 그후 세종 十九年(一四一七)에 와서 慶興이라 개칭하고 六年뒤에 성을 확장하고 도로부르 승격시켰다. 세종 二十二年(一四四〇)에 충성을 淸州로 옮기고 多溫坪에다 온성을 두었다. 세종 二十六年(一四四四)에는 경원북쪽 훈음에서 회령 서쪽에 독산연대에 이르르는 강변안에 성을 쌓기도 하였다. 세종 三十一年(一四四九)에는 석막 옛터에다가 富寧府를 설치하였다. 유진의 개척은 이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점차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사이에 이 계획을 실제 말아서 추진하였던 실무자들의 고통

과 애로는 말로써 표현할 수 정도였다. 김종서는 서울 조정에 서모해와 만대를 당하였지만 만 세종의 뜻에 부응하여 자기의 뜻을 펼쳤다. 북국의 싸웠던 찬바람 더욱이 별관을 휘몰아치는 거센 모래 바람속에서도 나라와 임금을 생각하였다. 휘하의 군졸들을 호방이처럼 일하게 다스려 절충장은 방위와 군물을 세우는 한편 고향을 떠나 수천리 북국의 차가운 눈보라속에서 望郷에 찻는 병사들에게는 어버이처럼 다정한 마음으로 대했다. 그는 무리편 군사들에게 뿐만 아니라 친족들에게까지 大虎라고 알려질 만큼 용맹하였다. 그는 五尺短軀였지만 피와 눈물을 지녔던 不世出의 인물이었다. 그는 황량한 北端에 수자리를 살어온 남쪽의 군졸들에게 때때로 靑주령을 품어주고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하여 술과 고기를 나눠 주어 흠뻑 마시고 취하게 하였고 자기도 이들과 함께 풍류를 즐겼다. 이러한 관치에서는 상하의 구별없이 장수나 군졸들이나 누구든지 한결 마시고 미고 놀게 하였다. 김종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군졸의 노고에 보답하지 아니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만년에 그를 배반한 신숙주도 이 당시 김종서의 幕下에 종군하여 啓文들을 초안하는 문필의 일을 도왔는데 그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신숙주를 아꼈다. 그후 육진개척을 끝낸 김종서는 개신장군이 되어 함길도에서 서울로 돌아왔다. 김종서는 곧 정승의 자리에 발탁이 되어 다시 세종의 명을 받들어 「고려사」의 편찬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창설기의 국사의 기틀을 바로잡는데 진심하였다. 세종이 세자(문종)에게 정사를 대행케 하였던 만년에 또 다시 서북지방으로 나가서 험한 아인의 침투를 막는 중책을 맡기도 하였다. 세종말년에 우리의 국토가 두만강까지 이르러면 동북방면의 개척은 모두 그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세종은 김종서로 하여금 세자를 받들어 안위의 나라 일을 돌보게 하였다.

과 애로는 말로써 표현할 수 정도였다. 김종서는 서울 조정에 서모해와 만대를 당하였지만 만 세종의 뜻에 부응하여 자기의 뜻을 펼쳤다. 북국의 싸웠던 찬바람 더욱이 별관을 휘몰아치는 거센 모래 바람속에서도 나라와 임금을 생각하였다. 휘하의 군졸들을 호방이처럼 일하게 다스려 절충장은 방위와 군물을 세우는 한편 고향을 떠나 수천리 북국의 차가운 눈보라속에서 望郷에 찻는 병사들에게는 어버이처럼 다정한 마음으로 대했다. 그는 무리편 군사들에게 뿐만 아니라 친족들에게까지 大虎라고 알려질 만큼 용맹하였다. 그는 五尺短軀였지만 피와 눈물을 지녔던 不世出의 인물이었다. 그는 황량한 北端에 수자리를 살어온 남쪽의 군졸들에게 때때로 靑주령을 품어주고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하여 술과 고기를 나눠 주어 흠뻑 마시고 취하게 하였고 자기도 이들과 함께 풍류를 즐겼다. 이러한 관치에서는 상하의 구별없이 장수나 군졸들이나 누구든지 한결 마시고 미고 놀게 하였다. 김종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군졸의 노고에 보답하지 아니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만년에 그를 배반한 신숙주도 이 당시 김종서의 幕下에 종군하여 啓文들을 초안하는 문필의 일을 도왔는데 그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신숙주를 아꼈다. 그후 육진개척을 끝낸 김종서는 개신장군이 되어 함길도에서 서울로 돌아왔다. 김종서는 곧 정승의 자리에 발탁이 되어 다시 세종의 명을 받들어 「고려사」의 편찬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창설기의 국사의 기틀을 바로잡는데 진심하였다. 세종이 세자(문종)에게 정사를 대행케 하였던 만년에 또 다시 서북지방으로 나가서 험한 아인의 침투를 막는 중책을 맡기도 하였다. 세종말년에 우리의 국토가 두만강까지 이르러면 동북방면의 개척은 모두 그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세종은 김종서로 하여금 세자를 받들어 안위의 나라 일을 돌보게 하였다.

### 第九回 大行 高陽강좌 안내

중앙종친에서 지난 86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대학생 교양강좌를 금년도第九回 수강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전국의 종친 여러분께서는 二世 교육사업의 일환임을 감안하시어 順金の 자녀들이 적극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좌에 정일: 8월중순(5일간)
  - 강좌장소: 전남 승주군 주암면 주암리 방죽동 始祖齋室(同源齋)
  - 강사: 宗親中에서 친원위촉(대학교수, 법관, 학자들)
  - 강의제목: 族譜의 연원, 편집내용, 家禮상식, 현조의 略史, 생활법률 및 일반상식, 기타
  - 수강신청자격: 順天金氏로서 남녀 대학생과 동등의 학력소지자(고교를 졸업한 자 포함)
  - 입소자 결정: 七月五日까지 접수하고 30명정도 선발
  - 입소에 정일: 추후 서면으로 통지함
  - 수강료: 무료(숙식비와 교재비 등 모든 경비를 중앙종친회에서 전담함)
  - 기타: 수강수료증을 수여하고 기념사진을 개별우송함
  - 문의사항: 전화(02) 718-0529 또는 서면문의 할 것
- 一九九四年 三月 二十四日
- 順天金氏 中央宗親會
- 會長 金鍾植



# 金宗瑞의 六鎮 개척실기

## (世宗大王편)

戰爭紀念事業會가 主管하는 龍山原에 있는 戰爭紀念館에 忠翼公 節齋 宗瑞 할아버님의 銅像胸像이 奉安되고 KBS 제 2 TV에서는 月火드라마 韓明濬가 放映되고 있는 이때 萬古의 忠臣이며 稀世의 名將이신 世宗의 顯祖 忠翼公의 略史를 실어 關北地方에 大鎭의 侵入을 막고 關北地方의 女眞의 侵入을 막고 關北地方의 安定을 이룩한 우리 民族史에 길이 빛날 功績을 再 照明하고자 世宗大王 金宗瑞의 「六鎭開拓實記」를 圖譯하여 실었습니다. (編輯室)



.....德으로 나라를 이 루기도 쉽고 또 심사의 일지도 알사 오나 힘으로 국토를 개척하는 것은 인기도 힘도 뿐만 아니라 인기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마 부번 지방의 국토개척의 어려움은 전체 하고 부관개척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그리고

世宗의 태조왕건은 무력으로 三鎭을 통일할 수 있었으나 그외에 六鎭(동북변경)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다만 鐵嶺이 그 경계가 되었을 뿐이옵니다. 그리고 세종 때에는 책략있는 어떤 신하가 무진에를 써서 오랑캐들을 크게 무찌르고 아홉 城을 쌓았으나 그 후 그들은 오랑캐와 서로 맹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니다. 우리 태조께서 朔方에서 일어나서 나라를 차지하시나 국토가 동남쪽으로 바다에 이르러서 북쪽으로 압록강에 이르러서 동북쪽으로 압록강에 이르렀습니니다. 이

내면서, 祖宗께서 지키던 땅을 한자한치라도 버릴수 없었다. 고 강경한 어조로 말하고 신하들의 주장을 물리쳤으나 그 후 이러한 논의는 다시 대두되어 조정이 시끄러워지게 되었다. 이때에 세종은 김종서에게 현재의 형편을 살펴서 보고하게 하고 石幕에다가 寧北鎭을 설치하여 경계를 정하는 여부도 물었다. 김종서는 북방에 와서 현지에나가 직접 돌아보지 않은 곳이 없고 또 말하는 것을 듣지 않은 것이 없이 다 들어보았지만 부가와 석막은 모 두 경계로 삼을만한 땅이 아니오며 또 용성만 잘지킨다면 勿忽(胡人)들이 감히 우리나라 땅을 쳐들어 오지는 못할 것이고 우리 백성들도 마음놓고 편히 살수 있을 것이라고 하오나 이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에서 나온 말이옵니다. 용성은 피눈을 막을만한 한 물(一)이 없사오나 무엇보다도 현존한 요새를 만들어 줄 수 있었사오며, 또 이것은 의지할 만한 산이 없사오나 이디에다 든든한 요새를 구축할 수 있었사오니까 이곳에서는 사방으로 흩어져서 싸우지 않을 수 있는 곳이므로 주위 네고을(四邑)을 요충으로 삼아 大鎭을 만들고 지휘하는 장수를 두어 지키게 할 것이옵니다. 장수가 네고을을 지휘하여 적들과 싸우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까 하옵니다.」

적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니다. 태종께서 이러한 일을 걱정하시어 우선 富居에 慶源府를 설치하고 그 지방을 다시 수복할 뜻을 두시었습니니다. 김종서는 오랑캐를 물리치고 동북지방의 변경지방을 다시 회복하여 한다고 역설하였다. 김종서는 세종의 북방정책에 대해 절단력을 촉구하였다. 이 앞서 조정의 여러 신하들이 동북지방 문제에 대해 찬찬하기를, 경원읍을 요충으로 후퇴시키면 북방의 정책이 한결 쉬워질것이며, 민폐도 거의 없앨수 있을 것이요

# 忠翼公 節齋 宗瑞 할아버지

## 戰爭紀念館 銅像 奉安

못할 경우에는 鐵嶺으로 다시 경계를 삼고자 할 것이옵니다. 하 고 다시 김종서는 역대의 군주가 국가의 발전지를 중하게 여겨야만 하는데 先祖의 땅을 버리고 나라가 일어난 근원지를 찾지 않으면 어떻게 그 후손들이 있다고 하겠으며, 조상이 물려준 나라를 훌륭하게 계승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였다. 그는 또 당초에 용성을 경계로 삼자는 논의는 도리에 닿지 않은 조건이 한 가지가 있고 또 일하는 데 불리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 즉 조상의 땅을 줄이는 일이 한가지 不義의 조건이 옴고 산천이 험하지 않은 것과 방어의 편의가 없음이 두가지의 불리한 조건이옵니다. 두만강을 경계로 삼으면 한 가지 大義가 있고 두가지의 큰이익이 있사옵니다. 먼저 조상의 땅을 회복하는 일이 한가지 대의이고 두만강의 험준함을 이용할 수 있고 되놈의 침입을 방어하기엔 편리함이 두가지 利點이옵니다. 그러므로 용성을 경계로 삼자고 하는것은 생각이 부족한데에서 나온 소치이옵니다. 하고 반대말 하였다. 성상께서 는 기회를 타서 한사람의 병정도 수고롭게 하지 않고 한사람의 백성도 상하게 하지 않고 옛 강도를 회복하여 이곳에 네 고을을 두었사오나 조상의 유업을 잘 계승하시고 또 빛내었다 고 할 수 있을것이옵니다.

다. 하고 세종의 북방에 대한 정책은 극력 높이였다. 그러나 김종서는 반대파의 의견을 의제 하여 협의의 두리 위하여 현재의 실정에 대한 바른보고와 자기의 솔직한 의견을 세종에게 주저함이 없이 진술하였다. 더군다나 첫째에 비록 눈이 많이 왔다고는 하지만 가족들이

그리 많이 죽은것이 아니요고 그 다음해에 돌연병이 심하였다고는 하나 사람들이 그리 많이 죽지는 않았사옵니다. 만약 반대하는 사람들이 말하였듯이 그렇게 심하였다면 農牛 戰馬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었사오나 또 軍卒 餘丁의 수가 그전의 머릿수보다 줄지 않았사오나 이러한 사실은 어찌 된 일이었사오니까, 여러사람이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많이 과장된것임은 구구히 밝혀지 않 아도 사실만한 일일것이옵니다. 또 지난해의 일로 말하면 그화가 크다하더라도 용성에서 한홍부가 죽은일과 과승우의 군사가 대패한일에 비하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았사오니까, 더군다나 災害는 한해 동안의 일에 불과하며 外敵은 수천명을 넘지 않사오니



忠翼公 節齋 金宗瑞 胸像

적으로 검토해보면 아주 失策이라 말할수 밖에 없사옵니다. ....도 某臣들이 현해하여 백성들의 이미 회령의 성을 쌓고 또 경원의 성을 쌓는데 기일을 넘기지 않아서 策城이 완료되었사오나, 더군다나 갑산 경흥의 성도 그곳 주민들의 힘으로 수축되었사오나, 모두 견고하여 북으로 야인의 침입을 능히 막을 만하게 되었사옵니다.」 하고 김종서는 북변현지에서 그곳 사람들이 이미 회령 경원의 성을 쌓았으니 당시 당면히 성을 쌓아야 할 급한 지역은 오직 중성과 용성뿐이고 이 두성만을 쌓으면 더 근심할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경원이 받은 화는 처참하다고 할만 하지만 백성들이 모두 두려워하지 않고 흩어졌던 사람들은 곧

어찌 걱정만하고 매일 두려워만 할일이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북으로 말갈에 연결되어 여러번 그들의 침입을 받아 왔으므로 고려 때부터 지금까지 그화가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나, 그러므로 이곳은 성곽의 修築과 군대의 훈련을 다른 도보다 몇배 배하는것이 당연한 일이옵니다. 을해성을 하나 쌓고 도도 내년에 성을 하나 쌓아서 성을 쌓지 않은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일이 어찌 義를 그르치는 것이 되었사오니까, 앞서 富居를 경계로 삼았지만 어찌 몇尺의 성곽도 쌓지 않고 있사오며 그 인근 고을(을) 역시 이러한 실정이오니 용성이남의 州郡이야 더 무엇이냐고 말할 필요가 있겠사오니까 이제 변경정책을

다시 모으려고 도망쳤던 사람들도 다시 되돌아와 농사에 힘쓰며 생계에 전심하여 어느때와 다름 없이 안정되어 가고 있사옵니다. 오늘날의 이러한 사실로 보아 이들은 죽어도 이고장을 떠나지 않고 나라를 위하여 싸울것이오며 또 자기의 분을 참을수 없어 敵便에 뛰어들이 최의 목을 자를 용맹한 사람도 반드시 이들 가운데에서 나올것입니다. 경원고을의 일로만 보더라도 다른 세고을의 平民의 마음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사옵니다. 신이 북방에 오래 있어서 약인의 형편을 잘 알고 있사오는데 부자 형제라도利害가 상반되면 서로 죽이고 해치기를 마지않수와 같이 하옵니다. 날마다 천금을 쓴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은 수습

하기는 어렵고 그들과 후利로써 합친다고 하더라도 利가 없지 않다. 시그 독한 것을 되풀이 할것이옵니다. 그러므로 전으로 는 회유하여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리하여면 우리편의 세력은 점점 강해지고 적들 야인의 세력은 차차 약해질 것이옵니다. 이리하여 강해진세력으로 약해진 세력의 틈을 이용하여 들이 치면 우리의 북방정책의 뜻을 이룰수 있는 것이옵니다. 하고 서 울조정에논의 되고 있는 야인에 대한 회유책과 더불어 방어에 도 만전을 기하여 북방에서는 직접 침투를 마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종서는 신이 힘들면 성을 쌓고 甲兵과 士卒들을 훈련하고 군량을 저축하려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이옵니다. 성곽이 든든하고 갑병의 군건하고 날카롭고 사졸들이 잘 훈련되면 四鎭의 사람들이 제힘으로 자기 고을을 지키고 적들과 싸울 수가 있을 것이옵니다. 어찌 다른군대의 도움으로 외척의 침입을 終息시킬수 있으며 외척의 마음을 복속시킬수가 있을지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옵니다. 신이 북방으로 처음 왔을때 거의 허물어져 수리되지 않은 요새로써 충분히 적을 막아냈사오나 지금 石城까지 쌓아놓았으니 자력으로 방어하는데 무엇이 두려울게 있겠사오니까, 백성들이나 하여 모두 별로 저축할것이 없어도 飢饉에 굶어 죽는것을 모면하였사오는데 지금 해마다 풍년이 들어 백성들에게는 남은 곡식이 있사오고 관에서도 나머지 저축이 있사오는데 어찌 먹을것이 떨어질까봐 걱정을 하겠사오니까, 백성들이 안정하여 살고 있으며 자기가 살던 고장에서 떠나가는 사람이 날로 줄어가고 있사오는데 어찌 다 달아난다고 할수 있었사오니까, 鍾城의 축성만 끝나면 백성들은 지천으로 쉬게 될것이오는데 어찌 힘이 지쳤다고 할수 있었사오니까, 龍城같은곳은 지금 형세가 그리 높고 재력이 남는것을 기다려 축성 하더라도 별로 늦지는 않을것이옵니다. 하였습니다. 김종서는 시간적





# 順天金氏宗報

本宗報는 順天金氏 中央宗親會 會員 家口當 1부씩 無償으로 配布합니다.

發行人 金鍾植  
編輯室長 金炳鎔

發行所  
順天金氏 中央宗親會  
서울 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46-1(태평빌딩)  
電話: 02-718-0529

題字  
無影金仁厚  
<中央宗親會 理事>

## 門中の團合을

### 金鍾植會長人事



突西避禍事件 이아말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만큼의 끔찍한 大慘事를 당하고도 끈질기게 살아 남은 것을 生覺할 때 一九二餘年開地下에서 숨어 살이온 不續한 門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우리 宗親끼리는 인제 어디서 만나도 반갑고 情이 통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道德觀의 確立이 있어야 합니다. 社會生活(共同生活)을 하는 가운데 道德哲學 即 사람의 行動에 나타나는 習慣研究가 있어야 합니다. 習慣은 行動의 反復이요 反復되는 行動의 價値가 있는 行動을 善行이라 하고 德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善行을 길어 안

尊敬하는 宗親어려운 希望한 甲戌새해를 맞았습니다. 江流이 쉬지않고 太古에서 現在로 또 未來로 向하여 끊임 없이 흘러 가듯이 우리 順天金氏의 團合도 특집은 攝理에 따라 순공을 타고 흘러가고 있으나 不時에 어떤 突風을 만나면 뜻밖의 큰 災難을 입게 마련입니다. 우리 는 四五十年前의 世祖로 인한

기爲하여 記錄으로 남기는 것 이 歷史이고 門中에서는 族譜의 記錄하여 남깁니다. 이 族譜는 世界 어느 나라에서도 볼수 없는 特異한 것이 우리의 族譜입니다. 우리는 孝를 바탕으로 해서 道德哲學이 發達하여 祖上을 잘 받드는 文化는 바로 族譜에 依存하는 것이 唯一한 風俗인 것입니다. 歷史에 좋은 記錄이 남는 사람들은 凡人들 과는 달리 道德哲學이 있는 사 람입니다. 孝行이 첫째이고 다 음으로 社會를爲하여 泰仕할 줄 알고 이웃과 門中을爲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사심없이 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門中

#### 淸州宗親會 結成

忠淸北道 淸州市 一團의 居住하 는 宗親들의 宿願이었던 淸州宗親會를 一九九三年 四月에 結成하여 規約에 따라 任員을 選出하고 임 장 趙秉을 내디뎠다. 淸州地域은 宗親이 많지 않아 비록 조출만도 임이지만 金圭淵會長님을 비롯하

#### 任員名單

顧問	金廣殷
顧問	金琪淵
會長	金圭淵
副會長	金英熙
總務	金海淵
監事	金秀永

## 會長團會議 열고

### 金昊淵 應징하자는 輿論 沸騰



#### 中央宗親 創立四週年紀念日 自祝

93年 9月24日 中央宗親會 創立 四週年紀念日을 맞아 金佑永監事 님을 비롯하여 前任 金在根 金俊永總務幹事님들을 招請 小會議室에서 조출한 自祝宴會를 베풀고 創立四週年을 祝賀하였다. 午餐에 이어 茶葉會로 이어진 자리에서 앞으로의 宗親會의 進路와 運營의 改善策 등의 격의없는 意見이 交換되었고 情談이 저녁무렵까지 이어졌었다. (一無)

어 任員들의 熱意에 期待하는바 크다. 當일 選任된 任員과 會員은 다음과 같다.

二月十六日 十二時 中央宗親會 小會議室에서 會長團會議가 열렸다. 參事님 大개가 明明하지 못하고 우물 한분위기였다. 그 까닭은 오늘의 討論案件이 첫 제로 任員年會費 未納額이 자기만치 三,三七八萬원이나 되어 宗親會 運營에 甚大한 支障이 있으니 解決方案을 찾자는 것이고 둘째 案件 亦是 先祖 史蹟地淨化委員會 存廢問題를 다루자 는 것이고, 셋째로 이번 會議에 重要 案件으로 襄景公 宗土를 賣却處分하 여 景德廟 周圍의 土木工事를 벌리자 는 金佑永 都司님이 提議한 案件들 모두가 명랑하고 건설적인 案件이 임 인 것일게다. 幹事長의 開會演說으로 열린 會議 는 會長(昊淵)의 人事에 이어 第一議 案인 年會費 未納金 收納促求의 件은 任員各自가 서로 踴躍하기로 決議한 다음, 第二議案 會議에 들어가 先祖史蹟地淨化委員會는 發足한지는 오래 되었으나 任員構成은 充分 事業을 著手도 못한 實情이니 有名無實한 機構 는 차라리 解體하고 모든 業務를 中央宗親會에 一元化하여 積極적으로 行 나가기로 決議하였다. 幹事長이 發言權을 얻어 金載俊副 會長이 임이 月潭祠 祭祀基金으로 五 百萬圓을 奉還한데 이어 이번에는 襄 景公 遺蹟 保存基金으로 淨財金五百 萬圓을 奉還함을 說明하니 場內의 모두가 拍手로서 感謝의 뜻을 表했으 며 議長은 이基金을 中央宗親會가 맡 아서 景德廟 保存事業이 시작되 면 有效하게 쓰겠다고 答復하자 또 다시 우리와 같은 拍手소리가 場內를 震동시켰다. 金圭淵監事님의 緊急動議로 지난번 韓火그를 金昊淵會長 兄弟의 財產紛 爭으로 우리의 順天金氏의 「일글」 격 인 界宗親會를 저지 않은 苦楚를 견 계하고 어머니를 비롯하여 집안 長인 을 시킨 事件發端의 張本人인 昊淵이 는 뒤우침은 고사하고 계속하여 輕微 門閥한 安營을 퍼뜨리고 있어 宗中의 한사람으로서 참아 「일글」 들수 없으 니 우리 宗門에서도 袖手傍觀만 할게 아니라 應分의 擔當을 하라고 提議하 자 議席에서는 昊淵이를 우리 門中에 서 破門시키고 宗親會의 모든 決議機 構를 動員하여 이를 廢止할것과 宗報 編輯者註) 宗土賣却處分의 관련된 本報는 佑永 總務 幹事님과 共同로 推進하였으나 이미 위 의 같은 工事中 道路鋪裝만을 除外한 工 事費가 지금 현재 約三千萬圓의 餘은 時 點에서 앞으로 事業의 推移를 親意注視 하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衆志를 모아 宗 中의 對 이 상 被害가 오지 않고 先祖의 祭祀의 宗財管理 또는 宗親의 和解力 案等을 提議하여야 할것입니다. 이 案은 여러 宗親 누구나 다 關心事인 만 큼 다음 機會에仔細한 內容을 알려 드 릴것을 約束하면서 아무쪼록 佑永宗親의 獨斷行動만을 나무라지 마시고 宗事의 熱誠이다 보니 施行節次의 差誤 誤으로 理解하는 아량도 보시고 宗孫도 「宗孫」다운 禮節한 宗孫으로 對할 수 있도록 다 같이 宗論을 보았으면 합니 다. (一無)

#### 襄景公 宗土 賣却處分의 件 重點論議 끝에 留保決議

등의 報告를 통하여 眼上을 憂되게 하고 父母에게 不孝하며 門中을 더럽 히는 言動을 즉각 中止하고 改過遷善 하도록 昊淵이를 嚴중히 警告할것을 痛場一致로 決議하였다. 이번 會議의 主要案件인 襄景公 宗土賣却處分의 件을 審議하기에 앞서 會議召集 및 討論案件의 提案者이신 金佑永氏에게 提案說明을 求한바 金 佑永宗親은 提案說明에서 襄景公 祖의 宗土인 廣州郡 草月面 西霞里 一六五 번지 陸九百五十平方 全所 三三三번 지 陸一百七十五平方 全所 三二七번 지 陸二百八平方 全所 430번지 三 二八坪 全所 三三五번지 田 二百三十 四坪 등 都合 五筆地에 一,八九一坪 을 賣却處分하여 基金을 造成하고 이 돈으로 一筆 二筆 一,七八一坪을 併 地整理(費用 三百九十一萬圓)하고 一 畝, 林, 田 등 四筆地를 田으로 形質變 更, 一現, 牛舍를 駐車場으로 一 引入道路 約二百米를 三米幅으로 擴張 鋪裝하며 池湖(연못)을 파는 費用 등에 쓰겠다는 說明이 있자 議席에서 相上的 宗土나 팔아서 宗事를 하겠다는 發想自體가 마땅치 않다는 意見과 換金價値 또는 後代에 가서 宗土나 팔아 버렸다는 憂이나 머겨되며 賜牌 之地處分을 몇몇이 決定할 問題가 마 나라는 등 昊淵이 續出하자 議長은 이 案件을 一斷 否決하고 다음의 開 催하는 理事會나 總會에 다시 上程討 議할것을 宣稱하고 閉會하였다.